

# 기도란 부처님과 무언의 대화로 '구름' 걷어내기



선지심을 찾아서 태승

## 원각사 해동선원장 태승 스님

먼 산에 불물이 올라 분홍빛으로 물들어, 가을엔 홍엽(紅葉)이 화려하게 수를 놓아도, 먼 산에 얽혀지는 그림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었다. 조실부모한 어린 소년의 가슴엔 항상 쓸쓸함과 외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행이라면 일찍 출가한 형님 덕분에 어린 때부터 절에서 자란 것이다. 절에 또래의 친구도 없었을 뿐더러 보고 듣는 것이 예불 올리고 공양 올리는 것이라 혼자서 하루 종일 '부처놀이'를 했다. 예닐곱 살 때부터 흙으로 구멍을 파서 '석굴암'이라 하고, 모래를 담아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렸고, 찰흙으로 부처님을 만들어 예불을 올리면서 놀았다.

열댓 살이 되자 형님은 출가를 권했지만, 그래도 어린 마음에 바깥세상이 궁금해 도시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했다. 성수 스님이 미타암 주지로 계셨고, 소년의 형님은 미타암에서 부전소임을 맡고 있었다. 형님은 소년에게 '성수 스님을 은사로 해 출가할 것'을 권했다.

"우리가 부모복도 타고나지 못했는데, 다른 복인들 뭐 그리 있겠노. 출가해 성수 스님처럼 도인이 되면 대통령도 안 부럽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이렇게 훌륭한 스님을 만난 것도 큰 인연이니 지금이 출가할 때인 것 같다."

형님의 말에 소년은 출가를 결심했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평생을 기도드리면서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환산성수 스님을 스승으로 불문에 발을 들여 놓았으니, 그때가 열일곱 살이었다.

미타암에서 시작한 행자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또 다른 한 명의 행자와 함께 도량을 청소하고 공양을 준비하는 등 절의 온갖 허드렛일을 했다. 일을 하면서 <천수경>을 외우는데, 다른 행자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외우는데 반해 소년은 두 줄 밖에 외우지 못했다. 이들을 가르치던 노스님은 소년에게 "집승이 사람이 돼서 둔하다"는 말을 자주했고, 소년은 출가에 대해 회의를 품었다. 연애편지와 사진도 태우고 돈도 다 나누어주고 마치 죽으러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절에 들어왔는데, 이곳 또한 차별이 있고 경쟁이 있는 살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노스님에게 나는 왜 이렇게 재주가 없느냐고 여쭈었더니 '전생에 지은 업이 두터워서 그렇다. 참회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일했다.

늦게 출가한 터라 할 일도 많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삭심 리 길을 걸어 장을 봐다 나르는 등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잠을 아껴 기도를 했다. 밤 아홉시에 취침 종이 울리면 전 대중이 잠자리에 드는데, 자는 척하고 있다가 5분정도 지나면 살그머니 빠져나와 굴뚝당으로 향했다. 철축 같은 어둠 속에서 전생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소멸 해달라고, 그리고 미혹에서 벗어나 해탈(解脫)을 달라고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 덕분에 허가 받아졌음을 스스로도 느낄 정도였다. 소년은 행자생활을 마치고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받고 '태승'이라는 불명을 받아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태승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원각사 해동선원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사방 어디로 눈길을 주어도 지리산의 웅장한 자태가 한 눈에 들어온다. 폐교를 개조해 만든 해동선원에 들어서면 세상을 향해 우뚝 솟은 통일대불이 먼저 반겨준다. 통일대불을 중심으로 청동미륵반가사유상과 달마상, 십일면관 음보살상과 나한상 등 100여위의 석조불보살들이 봉안돼 있어 야외전시관에 와 있는 것만 같았다. 스님은 "한 백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 석불에 이끼가 끼고 바람과 시간에 풍화돼 또 하나의 문화재가 될 것"이라 했다.

## 출가한 형님 덕분에 '부처놀이' 하며 절에서 자라 폐교 개조 해동선원 주석... "근기맞게 수행해야"

스님은 통도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하고 몇몇 마음 맞는 도반들과 함께 강사자격증을 따서 앞으로 강사노릇을 하기로 했다. 은사스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강원에서 일대시교를 봤으면 실천을 해야지"라고 나무랐다. "참선수행 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은사스님의 말씀에 강사가 되겠다는 계획을 접었다. 공부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깊은 산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대산 상원사에 가기로 결심했다. 은사스님은 "깊은 산에 가서 십년동안 산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내려오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고 다짐을 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칠년간 선수행에 전념했다. 월경사 주지 회찬 스님은 태승 스님의 필필임을 한 눈에 알아보았기에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월경사 복원 불사를 위한 기도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은 그 중대한 임무를 맡아 적멸보궁에서 1000일 기도를 무사히 끝냈다. 스님은 "기도란 부처님과 무언의 대화를 통해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이며,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하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최선의 인도(引導)와 보호를 받게 된다"고 했다.

스님은 평생을 수좌로 살아왔지만 참선 수행이 제일 좋다고 내세우지 않는다. 저마다의 근기가 다르듯이 화두참선, 염불, 기도, 절수행을 비롯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수행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평생 어떤 화두를 참구하시는지 여쭈었다.

"강원에서 <서장>을 공부하면서 조주 '무(無)자' 화두가 제일 좋다고 하기에 그것을 화두로 삼았어

요. 옛날 중국에는 절에서 개를 많이 키웠는데,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지나가는 개를 가리키면서 '개에게도 화두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그때 조주 선사가 '무(無)'고 했는데, 질문을 던진 그 스님은 '무'라는 한 마디에 깨쳐야 하는데 깨치지 못해 그것을 화두로 해 공부한 것이지. 이렇듯 세상에 두 무릎물 화두 아닌 것이 없어요."

스님은 피었다가 지는 노란 국화를 가리키면서 '국화는 왜 하필 따뜻한 봄날을 두고 서리오고 차가운 가을에 피는지 의심해보라'고 일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국화는 왜 따뜻한 봄을 두고 가을에 피는가?"하고 물어보았다.

"자신에게 물으면 참선이 되지만 국화나 꽃들에게 물으면 그것은 사된 것이다. 자기 안에서 의심을 풀고 자기 안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 화두지요. 생각을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이 세상의 국토와 꽃과 중생이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고만부자라. 화두도 방편이고 염불도 방편인데, 깊은 달

라도 목적은 같아. 한 가지 방편에 집중해 알려진 마음, 친견하려는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 정진하다 보면 분심(分心)이 일어나고 그 분심에 옹매심을 더해 전력 질주 하다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행정진을 할 때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순경이 있으면 반드시 역경이 있게 마련이라 했다. "역경을 맞이했을 때 분심이 일어나면 그것을 엔진으로 삼고 삶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대역전이 이루어져 큰일을 해낼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의 이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처 성품을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불교의 정법으로 코를 깨어 가야 합니다. 고삐를 끌고 가는 힘이 강하지 못하면 주인 없는 소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이 곡식밭을 절단 내어버리기 십상이니 그 피해가 무한한 것이라. 화두참선이나 기도, 염불이 고삐기능을 하는데 이것으로 자신을 잘 다스린다면 자신의 목적인 바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역대조사들도 다들 그렇게 살아왔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지극하면 이루어지듯이 '공부가 되나 안 되나' 조바심내지 않고 굳게 믿고 공부하면 진척이 있다. 스님의 이 말씀은 '한 생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목숨 떼어놓고 참선수행과 기도수행을 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태승 스님은 조계사 주지와 통도사 주지, 불교텔레비전 초대사장, 불교방송 이사 등을 역임한 종단의 어른이시다. 스님의 길을 가던 태승 스님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위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런저런 소임을 맡게 됐다. 은사 스님께서 범어사 주지를 맡게 돼 말상좌로서 은사님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어

태승 스님은... 1956년 울산 미타암에서 성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 57년 범어사에서 통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0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통도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 강원을 마친 후 오대산 상원사에서 7년간 선수행. 조계사 주지, 통도사 주지, 제11대 중앙총회위원, 불교방송 이사, 불교텔레비전 초대사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총재 역임. 캐나다 밴쿠버에 통도사 해외본원 서광사 창건. 지금은 산청 원각사 해동선원 주석.

**특허출원 중**

**여러분의 오늘 운세는? 백팔번뇌 파자비결에 있소이다**

- 갑골문자는 하늘의 계시로 기록한 점서(占書)이며 한자(漢字)의 모체로 신동력이 있다.
- 갑골문자를 모체로 한 한자(漢字)는 변(邊)과 체(體)가 역(易)을 근본으로 음양오행이 조화되어 철학적 가치가 있다.
- 백팔번뇌 파자비결은 한자의 변(邊)과 체(體)를 음양오행으로 파자(破字)하여 천부의 계시를 표의(表意)하였으므로 미신이 아니다.
- 격암유록 정감록비결도 파자(破字)의 신동력으로 미래의 국운을 예지한 예언서이다.
- 누구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매년 매월 매일 매시의 운세를 108점의 파자비결의 신동력으로 볼 수 있다.

▶ 무료강의내용 ◀  
**파자비결 . 생활풍수 (실내인테리어) 월. 수. 금 2개월 무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 160 플래티늄 빌딩 403호 송암출판사 강의실  
 주문전화 02)2266-8823 H.P 010-7742-3111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몽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